

“지역 특색 반영... 중기 현장 소통·지원 강화”

광주전남중기청, 핵심미션 발표 지역협·단체와 지원기관협 구성 ‘스타트업 코리아 in 광주’ 개최 지역특화 동행축제 연 3회 확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올 한해 지역협업 네트워크 구축, 창업 활성화 등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활력을 찾아주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8일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미션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핵심미션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직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의 성과관리 노하우를 조직문화에 접목하는 ‘핵심 미션제’를 도입함으로써 구축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하나의 강력한 원팀’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기업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할 핵심미션을 선별, 광주전남중기청을 비롯한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공동 핵심미션을 부여하고, 지난달 26일에는 본부와 지방청 간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부여된 핵심미션은 △지역협업 네트워크 구축 △지역창업 활성화 △동행축제의 지역 특화 연계 방안 마련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안착 방안 마련 △추가미션 등 총 5개로, 광주전남중기청은 공동 핵심미션에 광주·전남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중앙 정책 전파와 현장 목소리 실

시간 청취 등을 위한 핵심 수단인 지역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관내 협·단체의 장과 유관기관장으로 구성된 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한다.

매월 협·단체 방문을 통해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 밀착 중심으로 기업과 지원기관 간의 협력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달 말 ‘스타트업 코리아 in 광주’ 개최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in 광주에서는 비전발표, 토크콘서트, IR 피칭, 스타트업 아이템 전시부스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확장하고 지역 스타트업과 투자사 간 상생의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광주·전남 창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발족하고 창업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기상장투(기술·사업화·창업·투자) 한마당’

도 개최한다.

동행축제의 지역 특화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에만 개최했던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해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5월 가정의 달과 연계한 ‘봄빛 축제’를 시작으로 9월 추석과 연계한 ‘황금녘 동행축제’, 12월 크리스마스와 연계한 ‘눈꽃 축제’ 등을 릴레이로 개최해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상생소비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행사로는 플리마켓, 온라인 판매전, 전통시장과 연계한 요리경연대회·미술제·체험사진 공모전 등이 진행된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되고 시행됨에 따라 지역 기업 현장에서도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제주 지역별로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추가미션을 통해서도 지역 소상공인 ‘기 살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전KDN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판매용 포장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지원단을 활용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부터 지역 내의 중소벤처기업부가 되어 지역 기업 현장과 정책 현장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정책 성과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직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기아 ‘The 2024 니로 플러스’ 출시
첫 PBV... 일부 사양 기본화·추가

기아가 첫 번째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니로 플러스’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4 니로 플러스’ (사진)를 8일 출시했다.

1세대 니로 EV를 기반으로 개발된 니로 플러스는 지난해 5월 말 출시와 함께 기아의 본격적인 PBV 사업의 출발을 알린 모델로, 본격적인 출고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약 4700대가 판매됐다.

기아는 니로 플러스를 구매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The 2024 니로 플러스를 사용 목적에 더욱 적합하도록 일부 사양을 기본화하고 신규 사양을 추가했다.

The 2024 니로 플러스는 △크루즈 컨트롤 △전자식 톱미러(ECM)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 주행 편의성을 높

여줄 사양을 택시 모델과 업무용 모델 모두에 기본 적용했다.

또 택시 모델은 2열 승하차가 잦고 승차 시간이 길지 않은 특성을 고려, 2열 열선 시트에 20분 후 자동 꺼짐 기능을 적용해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였고 업무용 모델에는 2열 센터 암레스트와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를 추가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기아는 전기차 개인택시 고객을 위한 ‘기아 EV멤버스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기아 EV멤버스 택시는 국내 최초의 전기차 구매고객 중 개인택시를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 카카오톡 블루 가압비, 기사식당 쿠폰, 택시 전용 용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곽지혜 기자**

광주은행, 아파트 담보·전월세 보증금 특판

1200억 한도... 최고 1.0%p 우대 이자 부담·청년 주거 고민 경감

광주은행은 금리 상승기에 따른 이자 부담과 청년들의 주거 고민 경감을 위해 아파트담보대출 및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 특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담보대출은 특판 감면금리 0.5%p를 제공, 기존에 조건 충족 시 제공하는 우대금리 최고 0.5%p까지 더하면 최고 1.0%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특판 감면금리 0.2%p를 제공해 기존에 조건 충족 시 제공하는 우대금리 최고 0.2%p까지 더하면 최고 0.4%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담보대출은 1000억원,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은 200억원을 한도로 특별 판매할 예정이며, 해당 우대금리 적용 시 지난 7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은 최저 연 4.74%,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최저 연 4.63%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특판은 주택 구입 자금과 생활 안정 자금, 타행 대출 상환 용도로 한정해 신청 가능하며,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만19세부터 만34세이하인 무주택(예비)세대주 본인이나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도 신청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국세청 “복지세정 강화, 민생경제 위기 극복”

상반기 지방청 세무관서장 회의 운영석 청장 “신뢰받는 국세행정”

광주지방국세청은 8일 정부광주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광주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세무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운영석 청장은 “올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지원, 복지 안전망 구축, 조직문화 개선 등 상반기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운 청장은 특히 대내외 경제 불확실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영세 사업자 등에게 환급금 조기 집행, 납세유예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또 자체 제작한 ‘찾아가는 현장소통’ 영상 상영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세무정보를 각종 설명회·간담회 시 납세자에게 적기 제공하도록 주문했다.

운 청장은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및 시간 소득과파 제도 확대 등 복지세정 분야를 더욱 강화해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과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비정규직·반복적 탈루 유형을 철저히 검증하되 조

사규도 감축, 간편조사 개선 등 세무 부담을 완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자”고 말했다.

이어 “세대 간 화합과 융합을 위한 각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소통과 경청의 문화가 조직 내부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역량 향상을 통해 주요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권범 기자**

금호타이어, TCR 시리즈 5개 대회 타이어 독점공급

엑스타 S700 등 공급 “레이싱 기술력 입지”

금호타이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TCR시리즈 중 ‘TCR 남미’, ‘TCR 중동’ 등 2개 지역 대회와 ‘TCR 호주’, ‘TCR 브라질’, ‘TCR 핀란드’ 등 3개 국가 대회까지 올해 총 5개 대회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TCR(Touring Car Racing)은 글로벌 투어링카 레이싱 대회를 이끌고 있는 WSC(World Sporting Consulting) 그룹이 주최하는 양산차 기반의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로 ‘모터스포츠화’의 가치를 앞세워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현재 TCR 경기에 출전하는 차량은 글로벌 16개 브랜드의 25대이며 이들 모두 경주차 플랫폼 제조 기술에 대한 인증을 받은 상태다.

TCR 시리즈에 출전하는 아우디 RS 3 LMS TCR, 혼다 시빅 Type R, 폭스바겐 골프 GTI TCR, 현대자동차 엘란트라 N

TCR 등 모든 차량은 고속 주행 중에도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발휘하는 금호타이어의 레이싱 타이어 ‘엑스타(ECSTA) S700’와 빗길에서도 높은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발휘하는 ‘엑스타(ECSTA) W701’를 장착하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부터 TCR 시리즈 중 TCR 유럽, TCR 동유럽, TCR 덴마크, TCR 스페인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며 타이어 그립 성능과 핸들링 등 기술력과 품질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부터 5개 대회에 타이어를 추가 독점 공급하며 최상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운장혁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앞으로도 글로벌 모터스포츠 대회에 지속적인 참여와 후원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개최된 ‘TCR 코리아 투어링카 챔피언십’의 공식 타이어 후원사로 참가한 바 있으며 지난 2007년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F1 경주용 타이어 시제품 개발에 성공, 국내외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의 공식 타이어로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곽지혜 기자